

‘슈틸리케호’ 첫 출항...오늘밤 8시 파라과이와 평가전



“수비 강화로 이기는 축구 하겠다”

“선수 선발도 수비 중점...무실점 경기로 증명할 것

U-19 대표팀, 2018 러시아월드컵에 기용할 수도”

한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을 앞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훈련 내용을 통해 예고한 대로 ‘수비 조직력’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먼저 올리지 않고 기초를 닦게 마련”이라면서 “그래서 수비를 먼저 집중적

으로 연습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프로농구(NBA)의 ‘격언’도 입에 올렸다. “공격을 잘 하는 팀은 승리하지만 수비를 잘 하는 팀은 우승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 격언을 믿고 실천하려고 한다”고 선언하면서 “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에도 수비에 중점을 뒀고 수비 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실점’으로 내일

경기를 마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한 기자가 파라과이전에서 공격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혹시 파라과이 대표팀 직원 아니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친 상황이다. 그동안 선수들의 의지와 사기를 높이는 데에 집중했다. 골키퍼부터 마무리 슈팅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했고 그 결과와 내일 경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게임이나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를 뛴 선수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

해 박주호(마인츠), 김승대(포항 스틸러스) 등 아시아게임 대표 출신의 교체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날 한국의 첫 경기가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대비한 장기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대답한 뒤 “아직 선수들을 지켜보는 단계다. 그 때 21~22세가 돼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이번 U-19 대회에 출전한다. 그들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루이스 vs 한국 女군단

사임다비 LPGA, 루이스 1R 선두

최나연 등 4명 2위 그룹 1타차 추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아시안 스윙의 두 번째 대회도 세계랭킹 1위 스테이스 루이스(미국)와 한국 군단의 우승 대결로 시작됐다.

루이스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골프앤드 컨트리클럽(파71·6244야드)에서 열린 사임다비 LPGA 말레이시아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쓸어들려 6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다.

루이스는 올 시즌 3승을 거두며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뒤쫓는 한국 선수들도 만만치 않았다.

최나연(27·SK텔레콤)이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로 1타 뒤진 공동 2위에서 추격에 나섰다.

지은희(28·한화)와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박희영(27·하나금융그룹)도 5언더파 66타로 2위 그룹에 합류했다.

이 밖에 양희영(25), 제니 신(22·한화), 이미향(21·불بك)도 4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6위에 오르는 등 대회 첫날 톱10 안에 무려 7명의 한국 선수가 자리 잡았다.

신인왕 포인트 1위(1306점)를 질주하는 리디아 고(17·뉴질랜드)는 2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16위로 첫날을 마쳤다.

신인왕 부문에서 리디아 고를 추격하는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은 이븐파 71타로 공동 40위에 머물렀다. 이미림은 신인왕 포인트 750점을 쌓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 브랜드’ 르브론

美 포브스 4개 브랜드 가치 조사

NBA 킹, 우즈 제치고 스포츠 1위

미국프로농구(NBA) ‘킹’ 르브론 제임스(미국)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따돌리고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가 됐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스포츠 사업, 대회, 팀, 선수 등 스포츠 분야 4개 브랜드 가치를 조사, 각 부문 ‘톱 10’을 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임스가 스포츠 선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 부문 1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출근 우즈가 독차지했다.

제임스는 올해 브랜드 가치가 3700만 달러(약 397억4000만원)로 평가됐다. 지난해 2700만 달러(약290억원)에서 1000만 달러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제임스는 나이키,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과의 계약 등으로 지난해 5300만 달러(약569억2000만원)를 벌어들이며 브랜드 가치를 올렸다.

우즈는 브랜드 가치 3600만 달러(약 386억6000만원)로 조사돼 제임스의 뒤를 이었다. 지난해 4600만 달러(약 494억원)보다 대폭 줄었다. 포브스는 우즈와 비디오 게임 회사인 일렉트로닉 아츠의 계약이 만료된 게 우즈의 브랜드 가치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즈와 일렉트로닉 아츠는 지난해 10월을 끝으로 15년간 계약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다.

3위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차지했다. 페더러의 브랜드 가치는 3200만 달러(약343억7000만원)로 평가됐다.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대회는 미국프로풋볼 챔피언결정전인 슈퍼볼로 나타났다. 슈퍼볼의 브랜드 가치는 5억 달러(약 5370억원)로 평가됐다. 슈퍼볼은 지난해 TV 중계료, 입장권 판매, 하프타임 쇼 등으로 5억1800만 달러(약 5563억3000만원) 수입을 냈다. 슈퍼볼은 2007년 포브스가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이래로 내내 이 부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팀 부문에서 1위는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가 차지했다. 양키스의 브랜드 가치는 5억2100만 달러(약 5095억5000만원)로 조사됐다. 스페인 프로축구 두 명문 레알 마드리드(브랜드 가치 4억8400만 달러), FC바르셀로나(4억3800만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나이키가 190억 달러(약 20조4000억원)로 평가돼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캡틴’은 기성용 첫 주장 낙점

축구 대표팀의 ‘중원 사령관’ 기성용(25·스완지시티)이 새로 출범한 슈틸리케호의 첫 주장이 됐다.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은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성용을 주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성용은 슈틸리케 감독이 대표

팀에 부임한 뒤 첫 주장이 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인 기성용은 공격과 수비에 모두 관여하고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본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기성용은 나이가 대표팀의 중간에 위치해 최고참부터 가장 막내 선수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

다고 본다. 그는 선수로서 충분한 경험도 쌓았다”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주장 완장을 차 본 적이 없다.

그는 “운동장 안팎에서 선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장으로서 경기장 안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흥민과 대결 기대” 파라과이 공격수 산타크루스

파라과이 축구 대표팀의 베테랑 공격수로 산타크루스(33·말라가)가 한국의 ‘에이스’ 손흥민(레버쿠젠)과의 대결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산타크루스는 한국과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 무대에서 맞닥뜨린 한국 선수들에 대한 기억을 풀어냈다.

파라과이 축구 역대 최고 유망주였던 그는 1999년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을 시작으로 15년간 ‘유럽 리그’로 활약하고 있다.

산타크루스는 “잉글랜드 블랙번과 맨체스터시티에서 뛰 때 박지성과 그라운드에서 겨룬 적이 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이며 한국 대표팀 주장을 한 사실도 알

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는 지금도 손흥민처럼 젊고 유망한 선수가 많다”면서 “내일(손흥민과의 대결이) 굉장히 흥미로운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씩 웃었다.

산타크루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출전했다. 당시 파라과이는 한국에서 조별리그를 치렀고 그는 잘 생긴 외모로 여자 축구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2002년에는 젊어서 나도 내가 ‘꽃미남’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늙어서 미남이 아니다”라며 씩씩한 웃음을 지어 기자들을 폭소케 했다.

합계 기자회견에 응한 빅토르 헤네스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울리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헤네스 감독은 “슈틸리케 감독이 현역 시절 레알 마드리드에서 굉장한 수비수로 뛴 것과 지도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해온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내일 굉장한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도 그에(슈틸리케 감독의 수준에) 맞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